

멕시코 농촌지역에서의 마치스모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주종택**

1. 멕시코 사회와 마치스모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간주되는 남성우월주의의 한 형태인 마치스모(machismo)는 현대 사회관계의 주요한 특징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다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마치스모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인식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서로 상반된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도 마치스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남성이 여성을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치스모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마치스모에 대한 일방적 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남성이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나타나는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41-A00084)

** 순천향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교수

것은 아니고 성차별도 라틴 아메리카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스모가 이 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Gutmann 2003:18). 이런 마치스모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고착된 이념에 근거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혹은 남성들 사이에 마치스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결과로 오늘날 사회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역할과 의무는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적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마치스모가 실제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재분석하고 면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정체성(masculine identity)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남성들과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치스모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마치스모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과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가장 남성중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인접한 미국 사회와 비교하여 마치스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역이다 (Segrest et al 2003:22). 한편 멕시코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폐쇄적 생활을 지속하여 서구사회의 이념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던 농촌지역에서 마치스모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전통적 문화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멕시코 농촌지역에서 마치스모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도 농촌지역에서 마치스모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Bull 1998:25), 멕시코의 농촌지역은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다.

2. 마치스모의 연구관점과 방법

1) 기존연구의 현황과 문제

마치스모의 의미와 발전, 역할, 기능,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의 마치스모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중해에 인접한 남부 유럽 사회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천주교의 남성중심주의적 사고가 결합되어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사회에서 유럽의 정복자들이 원주민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겁탈하면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태도가 확산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런 연구들의 대다수는 특정한 측면을 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본질적으로 연구의 접근방법이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심리적인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Gorman 2004:43; Wolf and Hansen 1972; Paz 1961; Ramos 1962; Hardin 2002). 위와 같은 입장을 지닌 학자들은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사회적 성향이나 심리적 조건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과 의무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문화의 유입이나 식민지배 같은 사회변화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성 정체성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차지하는 영역은 마치스모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것이다. 주로 정치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인 분야에 있어서 마치스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Thomkins 1979; Andrade 1992; Riding 1985; Oster 1989). 예를 들면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 마치스모를 활용하는 전략이 여성과 사회를 통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특정한 정치지도자의 경우 마치스모를 이용하는 방식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이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밖에 사회문화적, 심리적 분야에서 남성들이 마치스모를 내세우면서 우월감이나 성취감을 획득하여 사회에서 기여하는 행태에 주

목한다.

마지막으로는 마치스모의 내용과 성격을 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Lewis 1961; Casas et al 1994; Goldwert 1985; Ingoldsby 1991; Stevens 1973; Cromwell and Ruiz 1979; Gutmann 1996). 이런 연구에서는 흔히 마치스모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부수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의 공격성, 성 역할, 용감성, 공격성, 성적 관심, 지배와 통제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지를 알아본다. 대체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마치스모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노력들이 주류를 이룬다.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마치스모와 남성의 성 정체성, 이에 따른 여성들의 남성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치스모나 남성성의 특징이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관념이라는 것이다(Hurtig and Montoya 2005:189; Gutmann 1996:223).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차이를 파악하려 하지만, 대부분 마치스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마치스모와 성 정체성의 개념은 시기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각 개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집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치스모를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행위에 연관시키는 내용과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마치스모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치스모를 논의할 때 여성에 대한 남성의 행위나 사고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성역할의 양극화, 여성의 착취와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마치

스모의 부정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다(Chant 2003:15; Segrest Romero and Domke-Damonte 2003:17). 이것은 남성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이성애(heterosexuality)와 더불어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2) 새로운 모델과 관점

마치스모나 남성성은 본질적인 내적 특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Irwin 2003:xviii).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용감하거나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로 그런 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성격 때문에 남성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Viveros Vigoya 2003:37). 마치스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집단의 고유한 성격에 의해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Gutmann 1996:3; Mirandé 1997:17; Sternberg 2000:92).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문화적 요소의 변화에 의해 성 정체성과 기존의 마치스모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마치스모의 특징이 있다면 변화하지 않는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즉, 마치스모를 일정한 사회의 정형적인 이념이라고 설정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스모도 사회의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요인들이 마치스모와 관계를 갖는 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정치적·문화적 조건이 특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알

아야 마치스모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이나 집단마다 사회의 구성요소에는 차이가 있고, 또한 이런 요소들이 마치스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마치스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편 개인과 집단의 성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성 정체성도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은 자신의 연령, 계급, 종족성이나 그밖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정체성을 하나의 복합적인 사회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 정체성과 개인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내에 한 가지 형태의 마치스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형태의 마치스모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Fonseca 2003:79; Fuller 2003:141; López-Vicuna 2004:243).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도 하나의 동일한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 성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멕시코의 남성성과 마치스모

1) 마치스모의 역사적 발전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마치스모는 식민시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 스페인의 원주민 사회정복으로 공격적인 남성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Chant 2003:15; Irwin 2003: xxxv). 첫째, 스페인에 의해 정복당한 후에 원주민 남성들은 수치심과 더불어 정복자들이 원주민 여성을 강간하여 피해를

본 것에 대항하여 강한 남성성을 기르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식민지배와 더불어 스페인을 통해 남성의 우월성을 증시하는 유럽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유입되었다. 셋째로 식민시대 이전의 아스테카 사회도 강한 남성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식민시대에도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접근은 식민지배로 인해 원주민 남성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정치적 저항의 하나로 마치스모가 발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Buffington 1997:127; Hardin 2002:16; Mirandé 1997:36).

마치스모가 스페인에 의한 라틴아메리카의 정복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마치스모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마치스모를 규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후속 세대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를 병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마치스모와 관련된 사고와 행위가 다른 지역에까지 넓게 확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한다(Mirandé 1997:56).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존재하는 마치스모의 문제를 식민시대의 강압적인 정복과 통치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마초’(macho)나 ‘마치스모’라는 단어가 1940년대까지 대중문화 분야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시대와 마치스모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식민시대에 멕시코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남성성이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빌라 카마초’(Avila Camacho)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Gutmann 1996:224; Mirandé 1997:65-66)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마치스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멕시코 혁명 이후이며, 마치스모와 관련된 이념은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독립 이후에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이 함께 들어왔다. 계급과 성, 종족성에 의해 엄격히 구분되던 식민시대의 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9세기의 남성성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정직하고 충실한 친구이면서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을 하는 남성이 멕시코 남성성의 모델이었다(Irwin 2003:47).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분야가 많이 생겼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의상, 행동, 성적 표현이 남성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성과 관련된 혼란은 20세기 초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서 사나운 남성성이 다시 나타나면서 마무리되었다(Irwin 2003:115). 판초 비야나 에밀리아노 사파타와 같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공격적이며 저항적인 혁명가들이 대표적인 마초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혁명이 끝난 다음에 마치스모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마초를 신체적인 힘이나 사내다움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과 남성지배의 측면보다는 정직, 헌신, 충성, 강한 인성 등의 긍정적인 내적 요소로 표현하였다(Mirandé 1997:65-67). 1940년대와 1950년대를 맞이하여 멕시코 영화의 황금기에 마치스모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가 폭넓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서 마치스모는 멕시코의 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멕시코적인 것’(Lo Mexicano)을 찾으려는 혁명 이후의 논쟁은 남성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Irwin 2003:187). 결국 마치스모는 멕시코에서 국가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여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당연히 멕시코는 마치스모를 의미하고 마치스모는 멕시코를 의미하게 되었다(Gutmann 1996:228).

2) 남성성과 동성애

혁명 이후에 마치스모의 이념이 확립되면서 남성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거부와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등장했던 여성화된 남성성을 묘사하는 상류층의 근대주의 문학이 타격을 입었고, 대신에 과거에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하층계급의 강하고 공격적인 남성성이 찬양되었다. 더욱이 동성애가 강한 남성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에서 195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한층 심해졌다(Irwin 2003:117, 196). 당시에 마초가 의미하는 것은 남성 사이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비타협적인 자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거만함과 공격성이었다. 이런 가정 아래에서 남성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동성애자들은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Carrillo 2003:351; Girman 2004:25, 31). 동성애자들은 ‘푸토’(puto), ‘호토’(joto), ‘마리콘’(maricón), ‘마리포사’(mariposa), ‘마리카’(maric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하되어 불리면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군대와 같이 남성들로만 구성된 집단에서 마치스모를 중시하면서 동성애를 비하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마치스모적 접근은 남성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남성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Carrillo 2003:352). 또한 남성성을 기준으로 남성을 구분할 때 가장 남성적인 마초와 가장 여성적인 동성애자라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남성성이 양극단으로 확연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이용하여 남성성을 판단한다. 동성애가 남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성애에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적 행위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동성애자 혹은 여성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비난이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남성의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분류하는 특별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Beattie 1997:67; Girman 2004:32). 이것을 보면 동성애는 힘의 분배에 의해 정의

되고, 성의 대상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Irwin 2003: xxiii; Mirandé 1997:137),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남성 정체성이 의심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4. 조사지의 특징

1) 조사지의 개관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산 환 델 에스타도(San Juan del Estado)’와 ‘누에보 소키아팜’(Nuevo Zoquiapam)이라는 무니시피오(municipio)에서 실시되었다. ‘산 환 델 에스타도’는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메스티소 마을로서 오아하카 주의 수도인 오아하카 시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과 오아하카 시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Pan American Highway) 등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도 매우 편리한 편이다.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오아하카 시로 왕래하면서 상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일반적인 농촌사회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오아하카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고 외부사회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또한 인구도 2,500명 정도로 멕시코의 일반적 농촌 마을 중에서 중간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반면에 ‘누에보 소키아팜’은 오아하카 시의 북쪽인 ‘시에라 화레스’(Sierra Juárez) 산맥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주의 수도인 오아하카 시로부터 54km 떨어져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원주민어인 사포테코어를 사용하고 오아하카 시와도 비포장도로로 연결되고 교통도 대단히 불편해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원주민 마을이다. 시에서 마을까

지 정기적으로 다니는 교통편은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일주일에 몇 차례 다닌다. 오래 동안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폐쇄적인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는 약 2,800명 정도 된다.

두 마을은 가구 수가 500여개 되고 인구는 2,500명 정도여서 면접과 참여관찰을 하기에는 대단히 적합한 마을이라고 하겠다. 이 두 마을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를 원주민과 메스티소가 중심이 되는 두개의 마을을 선정한 것은 두 지역의 마치스모의 성격이나 변화를 대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례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원주민 사회와 메스티소 사회가 조금씩 다른 사회경제적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두 사회에서 나타나는 마치스모의 문제를 모두 파악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마치스모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2) 조사지의 남성성과 마치스모

조사지역에서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마치스모가 존재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남성이나 여성 모두 마치스모가 잘못된 관습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고가 마치스모와 관련이 있는 지를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여자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음주, 그리고 외도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남성들의 집안일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여성의 활동영역을 집안으로 한정하는 행위 등을 언급한다. 남성들의 무책임 중에는 가족계획 없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포함되는 데 많은 경우에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기도 하며 마을에서 자녀가 16명인 집도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제한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

은 축제에 아무런 제재 없이 가지만, 여자들은 집안일을 마친 뒤에 축제에 참석할 수 있다. 음주의 경우에도 여자들은 술을 거의 못 먹게 하는데,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여성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축제에서만 술을 먹게 한다. 여자에 대한 비하도 심각해서 조금 나이가 든 부인(esposa)이나 애인(novia)에 대해 ‘늙은 여자’(vieja)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우는 어린 여자에게도 ‘늙은 여자’라고 조롱한다.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들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의 산 환 델 에스타도의 예를 보면 마치스모에 의한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엿볼 수 있다.

마을의 남자 하나가 23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았는데 15년 전에 멕시코 시로 떠나서 아무 소식이 없다가 5년 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3명의 자녀(22세, 21세, 15세) 있는데 중간이 아들이고 위와 아래는 딸이며 큰 딸만 결혼했다. 이 남자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나셨는데 집에는 무척 소홀해서 경제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돌아와서 딸과 아내를 수시로 구타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마체테(machete)로 잘랐다. 아내가 마을의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의 관리들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마을의 경찰이 남편을 찾아 나섰으나 남편이 산으로 도망가고 없다는 말만 들었다. 여자는 사회보험 병원(IMSS)에 가서 겨우 치료를 받았다. 여자와 가족은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아하카 시에 가서 살고 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안 때린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 때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나가서 소식이 없다(마르가리타, 57세).

가정 내 폭력이 심한 경우에 여성들은 오아하카의 ‘여성아동보호원’(Instituto para Protección de las Mujeres y Niños)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면 남자를 불러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무니시피오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집안의 문제가 심각해서 여자가 무니시피오에 보고하면 남자를 1-2일 마을의 감옥에 가두는 데,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는 예전과 같이 여자를 못 살게 구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마치스모로 인해 여성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남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마을의 한 가정의 사례를 보면 부인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시를 다니며 가정부로 일을 하다가 집은 가끔 방문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남자는 자주 술을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리며 다른 여자와 자기도 한다. 심지어 부인이 집에 있을 때에도 같이 잔 여자와 함께 집에 온 적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부인이 집을 비우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오히려 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 까닭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마치스모의 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마치스모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마치스모를 하나의 전통적 관습으로 이해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남녀 사이에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남녀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받은 일부의 여성들이 마치스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마치스모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나이 먹은 여성들은 오늘날 여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요즘 여성들은 토르티야도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먹는다. 화장이나 하며 좋은 옷이나 찾으며 일은 안 하고 돈이나 바란다. 내 손을 보면 빨갛도 많이 채취하고 일도 많이 해서 손이 엉망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밭에서 풀도 뽑고 가축도 돌보았다. 지금은 남자들만 밭에서 일을 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놀기를 바란다. 5, 6월에 씨를 뿌릴 때 매우 바쁘면 밭에 가서 식사를 나르거나 밭일을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젊은 여성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세탁기 등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려고 한다”(글로리아, 79세).

두 조사지의 지역에서 마치스모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마을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남

성들이 무책임하게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정치행위는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용도와 관습’(usos y costumbres)이라는 전통적 제도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마을 내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도 공민적-종교적 위계체계인 카르고 제도를 따르게 된다(주종택 1998:51-65). 카르고는 마을에 거주하는 21세에서 60세의 남성만이 참가하여(결혼을 했으면 18세부터) 3년마다 일년씩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아 마을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카르고는 경찰, 미화원, 사무원, 심부름꾼 등으로 일이 고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마을의 지도자도 카르고를 담당해야 할 사람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마을의 지도자나 관리가 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카르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의 회의에도 참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단이 부족한 셈이다. 여성들은 오아하카의 많은 마을에서 이미 여성들의 마을회의 참가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주시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마을의 관리들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남성들만 모이는 마을 회의에서 번번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들을 위한 혜택은 많지 않고 가정 내에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마을의 지도자나 관리, 치안판사가 모두 남성이어서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별로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동거(uni6n libre)라는 결혼 형태도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문제를 안겨준다. 멕시코에서는 동거도 결혼의 형태로 인정을 해주고 인구 센서스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실정에서 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거나 결혼식을 하기 원하지 않는 남녀는 보통 동거를 한다. 따라서 동거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데, 남성들 중에는 동거를 하면서 아내에게 폭행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동거가 과거보다는 줄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남자가 집을 나가 버린 경우에 보통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주면 여자가 기다리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찾는다. 요즘은 여자들도 남편을 따라 같이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럴 때에는 아이가 어리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간다. 그래서 마을에는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동거를 하다가 남자가 그냥 나가버려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마치스모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은 대체로 유사했다. 마치스모에 일부 문제가 있으며, 마을에 마치스타(machista)가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물론 마치스모가 어느 정도로 남아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스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질투심이 많아서 여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나가면 때린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마을 내의 남녀 모두 마치스모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지금은 가족 수가 작아져서 예전처럼 여성들이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그래서 의사, 사무원, 간호원, 비서,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도 있다. 그리고 교육의 영향으로 늙은 사람에 비해 젊은 남자들 사이에는 마치스모가 약화되고 있다. 전에는 여성들이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했지만 지금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은 뒤에 마을을 떠나서 일을 하지만 지금은 대학교육을 마친 여자가 결혼해서 마을 내에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마치스모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실정이다.

5. 사회적 변화와 마치스모

조사지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려서 과거의 사회문화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원주민 마을이나 메스티소 마을이나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작물의 상품화, 국제 및 국내 노동이주의 활성화 등으로 외부사회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외부사회의 문화나 이념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조사지에서도 마치스모를 비롯한 성 정체성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관계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 그동안 ‘에히도’(ejido), 혹은 ‘테레노스 코무날레스’(terrenos comunales) 같은 공동토지의 경작을 통해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해오던 농촌사회도 상업, 서비스업과 같은 비농업 소득이 증대하면서 개별적 생산과 소비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던 사회적 관념이나 관계가 약화되면서 개인의 판단과 가치관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집단이나 지역에 속한 곳에서도 마치스모와 관련된 남성과 여성의 행위와 이해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조사지역에 마치스모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종교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북미로의 노동이주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1) 종교변화

종교적 변화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마치스모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천주교가 지배적이며 소수의 개신교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종교활동을 하는 산 환델 에스타도와 개신교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누에보 소키아팜의 비교는 마치스모의 변화과정을 뚜렷하게 대비시켜 준다. 누에보 소키아팜의 경우에는 두개의 개신교회가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들

의 참여가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도 커졌다(주종택 2000b). 이에 비해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는 아직도 개신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아직 미약한 편이다. 한 젊은 여성은 산 환 델 에스타도의 마치스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평을 토로했다. “이곳은 아직도 신부와 마을의 남성 관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차별이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다. 그래도 근래에는 인근의 마을에 개신교회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곳의 여성들이 교회나 마을에서 서서히 활동범위를 넓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을에도 영향이 있다”(베로니카, 32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한 뒤에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부녀회 모임을 담당하는 한 여성은 마을 내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천주교회만 있을 때에는 마을 내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 예전과 달리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여자들이 자주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한다.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우리를 무시하지는 못 한다”(안드레아, 49세). 멕시코 이외의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개신교의 성장으로 마치스모가 영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서 과음, 폭력, 간통 등의 공적인 마치스모를 포기하고 가정 내의 책임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rusco 1995).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개신교회를 다니는 한 여성은 개종 이후에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가족간의 대화와 협동을 강조하고 부부를 서로 존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도 집에서 하는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전에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에게서 묻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에르네스티나, 45세). 이렇게 종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구 내의 문제에 남성들의 참여가 촉진되고 양성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조사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새롭게 형성되고,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면서 남성들의 의식과 행위가 과거와는 달라진다. 다시 말해, 천주교 중심의 사회에서 개신교의 등장으로 여성의 역할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마치스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개신교의 적극적 선교로 원주민 사회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 신도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주종택 2006). 이런 사회적 현상은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치스모와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로부터 억눌려 있던 여성들에게 개신교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들은 개신교회를 통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책을 받고 기존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주종택 2004:20).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복음주의적 개신교회는 남성들에게 억제와 정절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이 적용되었던 덕목을 남성들이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Chant 2003:137). 남성중심의 천주교가 지배하던 사회에 개신교가 들어오으로써 남성과 여성들의 행위와 사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생계영농 중심의 경제활동으로는 가구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많은 가구에서 다변화 전략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던 많은 여성들이 가구경제를 돕기 위해 일거리를 찾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경험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상업활동이고, 대부분의 마을 여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오아하카 시장에 가져다

팔다가 지금은 오아하카 시내에서 다른 상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매일 시장에서 소매를 하는 산 환 델 에스타도의 여성은 이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처음에는 남편이 내가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팔 채소를 받에서 가져다가 오아하카까지 날라다 주고, 가끔 오아하카의 시장에도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서 남편의 행동도 많이 바뀌어 예전처럼 돈을 낭비하지도 않고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한다. 또 자녀들이 있는 데에서도 나의 말을 존중해준다”(알레한드라, 52세). 오아하카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누에보 소키아팜과 오아하카를 왕래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내가 오아하카에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이라고 말하자 처음에 남편은 남들에게 창피하다며 말했다. 그러나 일년 정도 지나면서 내가 번 돈으로 가축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게 되면서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즘은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있다”(라우라, 39세). 이러 식으로 여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남성들이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Olavarría 2003:340; Viveros Vígoya 2003:32). 멕시코 시의 한 지역에서도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젊은 아버지나 남편들이 그릇을 닦고 세탁을 하며 아기 기저귀를 갈며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Gutmann 1996:151, 156).

조사지인 두 마을 모두 1982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농업생산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마을 밖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다. 물론 자본이 부족하고 교육수준이 낮고 경력이 부족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지만, 여성들의 소득은 가구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도시에 근접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산 환 텔 에스타도에서 소작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은 부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찾으면 오아하카에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지금은 일을 하는 여자들이 많아져서 남자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내가 돈을 벌기를 바라는 남자도 있다.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하고 아내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펠리시아노, 50세). 남자들이 별다른 일이 없거나 농사를 지을 토지가 없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아하카 시내에 가서 야채, 약초, 과일, 꽃, 계란, 메뚜기 등을 가져다 팔거나 가정부, 세탁, 다림질 등의 다른 일을 한다. 이런 까닭에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구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이를 숨기거나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소득이 가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남성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숨기거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움’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많다(Gutmann 1996:157; Olavarria 2003:336). 조사지에서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행위를 ‘일’(trabajo) 대신에 ‘해야 할 일’(quehacer) 혹은 ‘도움’(ayuda)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가구 내에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이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바꾸고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가치관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가구경제가 곤란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남성들의 태도가 많이 유연해졌다(Girman 2004:56; Viveros Vigoya 2003:33). 전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일과 작업장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만나는 남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작업장은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족에

대비되는 남성들의 활동영역이고 일은 남성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수단이다(Fuller 2003:143-150). 그동안은 멕시코에서도 ‘남성소득자’(male-breadwinners)의 신화에 의해 남성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생산과 소득을 획득하는 활동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며 성차별과 마치스모 이념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성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치스모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사지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구경제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 가구 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여자의 경제활동에 비해 수입이 별로 없는 남자는 여자의 의견을 상당부분 존중해주고 여성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도 감소한다.

3) 노동이주와 북미사회

멕시코 농촌사회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사회와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북미 지역으로의 국제 노동이주이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멕시코 농촌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불법적 혹은 합법적으로 북미 지역에 넘어가서 돈을 벌고 있다. 조사지역인 산 환델 에스타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미로의 노동이주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도 북미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고려하면(주중택 1995; 2000a), 이주경험이 있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북미에서 합법 혹은 불법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남녀평등에 대해 보고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성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미국에 가서 남성들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마을로 돌아와서 미국의 양성관계나 남성들의 행위와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한다(Malkin 2004:91). 1997년 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엔시니타스와 산 마르코스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산 환 델 에스타도를 방문하는 한 젊은 남성은 노동 이주 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멕시코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남녀간의 관계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도 처음에 혼자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멕시코에서처럼 여자를 대하니까 무식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3년 전부터 아내도 미국에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아내도 나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처럼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술도 자제하며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이폴리토, 47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남편을 따라 로스앤젤레스의 식당에서 일을 했던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미국에 갔다왔다고 남자들의 행동이 짧은 시간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과거처럼 여자들만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여자 쪽의 입 장도 고려한다. 종종 마을 내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밝히면 미국 물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소일라, 32세).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이주의 단위가 개인으로부터 여성을 포함한 가족으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조사지에서는 90년대 초까지는 남편이나 아들 중에 1-2명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고 주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경통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위험해짐에 따라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노동이주를 오래 지속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미국과 멕시코에 분산되어 있으면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여차 피 국제노동이주에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미국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에 마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남아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추세에 대해 산 환 델 에스타도의 남자 노인은 이렇게 불평했다. “미국에서 여자와 함께 몇 년 살다가 온 남자들을 보면 아내를 완전히 상전 모시듯 한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붙어서 다니면서 온갖 물건을 다 들고 다니고 심지어 집에서 필요한 물건도 아내가 가게에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시킨다. 그런 남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고 화를 낸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인 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곤살로, 76세).

북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달러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의 가치관도 함께 들여오며 이는 기존의 마치스모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즉 국제노동이주는 마치스모와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회적 공간의 역할을 한다(Malkin 2004:76). 조사지의 경우에 미국으로의 노동이주가 대부분 불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남의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농장이나 식당, 소규모의 상점, 가정집 등지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고용주와 그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얻는데 유리하다. 이런 실정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을 방문한 이주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성역할과 성정체성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일부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일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멕시코의 마치스모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6. 마치스모와 동성사회성

마치스모와 관련된 이념과 행위는 집안과 거리라는 두 장소에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집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거리에서는 남성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남성들은 거리에서의 마치스모를 통해 지배, 자신감, 공격성을 표현하고 이것이 남성들 간의 사회관계와 남성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거리에서의 마초가 진정한 마초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다(Gutmann 1996:205; Quintero 1998:152, 158).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는 마치스모를 통해서 남성다움을 노출시킴으로써 남성들 사이에 ‘존중’(respeto)과 ‘신뢰’(confianza)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마련한다. 이런 남성관계는 남성들만의 정치경제적·사회적 영역 등 가정을 벗어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있다. 남성들 사이의 남성성은 힘의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마초라고 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되지만 남성들 사이에 마초라고 불리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조사지역에서도 마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다른 마을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황소를 빌려서 사용한 후에 돌려주면서 ‘여기 너의 마초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 황소는 항상 일을 하고 힘에 세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초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 간의 경쟁을 통해 지도력과 힘을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여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 가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앞 설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때로는 내가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자같이 행동을 한다는 말은 매우 듣기 싫어 한다”(라이문도, 31세).

멕시코 시의 사례에서도 보면 집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인식되지만 남성들 사이의 싸움은 허용된다(Gutmann 1996:199-200). 이것을 보면 마치스모는 남성들 간의 힘을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Castarreda 2002:23; Lancaster 1992). 예를 들어 거리에서 마약의 복용 등 공격성과 강인함을 과시하고 남성들 간에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도 나타난다(Quintero 1998:149). 결과적으로 마치스모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남성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남성성을 확인하며 우정을 형성하는 동성적인 사회관계인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을 강화한다는 것이다(Viveros Vigoya 2003:43). 특히 ‘콰테’(cuate)라는 남성 친구의 개념을 통해서 남성들 간에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남성들끼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성의 유대’가 강화된다(Girman 2004:123; Gutmann 1997:393). 콰테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사회성의 강조는 조사지에서도 발견된다. “콰테는 친구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를 의미한다.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아주 가까운 사이에는 콰테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콰테와는 함께 놀고 춤추고 술을 먹으며, 대화하거나 담배를 같이 피는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한다. 이런 관계가 발전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함께 있으면 혼자서는 겁나서 할 수 없는 일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 느낄 수 없는 우정이 만들어진다”(헤로니모, 38세). 특히 이런 콰테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활동하다가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여자들이나 어른들은 남자 아이들이 몰려다니면 한상 안 좋은 일만 하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에도 콰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즘에 이 지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어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동성 친구들의 도움으로 같이 국경을 넘어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성 사이의 우정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음베르토, 28세). 남녀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조장하는 마치스모는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남성들 사이의 동성사회성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남성들의 우정을 의미하는 ‘콰티스모’(cuatismo)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음주의 관습이다. 멕시코에서는 남성들의 음주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일생의 주기에 따른 의례나 축제 등 여러 경우에 술을 많이 마시는데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뢰감이나 친밀감이 증대된다는 것이다(Brandes 2003:154; Gutmann 1996:177). 그렇기 때문에 금주를 하기로 결심하면 남성정체성이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들만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다양한 오락과 유흥을 즐기고 자신들만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술집인 칸타나는 남성들 상호간의 우정과 남성성을 발전시키며 확인하고 재정의하는 중요한 사회화의 장소이다(Mitchell 2004:176). 근래에 멕시코에서도 알코올 중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금주를 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익명의 음주자’(Alcohólicos Anónimos)라는 모임이 많이 생겨나면서 음주를 둘러싼 남성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익명의 음주자’ 모임에서 남성들의 우정과 마치스모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남성성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Brandes 2003:161; Gutmann 2003:20),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 환 텔 에스타도에도 두개의 ‘익명의 음주자’ 모임이 있는데 이를 두고 마을의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금주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겁쟁이’(cobarde) 혹은 동성애자(puto) 등 남자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런데 나가겠는가? 그곳에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한 일년간은 잘 다니다가 다시 술을 먹는다. 술 못 먹는 남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세쿤디노, 59세). 술을 매개로 한 남성들의 동성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음주를 자제하는 남성들을 비난하게 만든다. 음주를 함께 하는 것이 남성들 간의 사회관계를 확대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남성성을 의심 받게 되는 것이다.

7. 결론

마치스모의 내용과 형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외부와 내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마치스모를 둘러싼 담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Gutmann 1996:242), 행위에 대한 기대와 이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회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마치스모와 가족을 벗어난 사회에서의 마치스모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압력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마치스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 간의 편차가 있다. 특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마치스모와 관련된 행위와 사고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조사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불평등한 양성관계와 관련된 마치스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신들 스스로 마초라고 부르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Escobar Latapí 2003:109; Gutmann 1996:233). 개인의 성 정체성과 남성지배적 성향도 주어진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일생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많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마치스모적인 행위와 사고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남성지배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 사람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진 사람들 사이에는 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개신교의 유입이나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참여, 국제노동이주의 활성화 등의 사회변화는 마치스모에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남성정체성은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매우 유동적이며, 동시에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남성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입장이나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스모의 문제와 결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 차별, 학대, 가족의 방치, 구타, 권위주의적 태도, 문란한 성 행위, 지배와 통제 등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들도 거의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남성들 사이에 왜 마치스모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즉, 마치스모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남성 간의 관계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의미도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간의 관계에서 마치스모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습, 남성들의 동성사회성의 유지 등으로 거리에서 혹은 남성들 사이의 마치스모가 잔존하고 있지만 종교, 경제활동, 이주의 영향으로 가구 내의 마치스모는 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이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서는 마치스모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의 공적 영역과 남성간의 사회관계에서는 마치스모가 아직도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마치스모가 남성들의 생존과 사회활동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주종택

- 1995 “라틴아메리카의 농촌변화와 농민의 성격”, 『라틴아메리카연구』 8(1):235-262.
- 1998 “멕시코 농촌지역의 정치적 참여: 정치행위와 정치문화”, 『라틴아메리카연구』 11(1):39-84.
- 2000a “멕시코의 경제위기와 농촌지역의 국제노동이주”, 『라틴아메리카연구』 13(1):165-204.
- 2000b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종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 『한국문화인류학』 33(2):331-350.
- 2004 “멕시코의 사회변화와 개신교의 발전”, 『라틴아메리카연구』 17(1):5-48.
- 2006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변화와 개신교의 역할”, 『중남미연구』 24(2):157-184.

Andrade, R. A.

- 1992 “Machismo: A Universal Malady,” *Journal of American Culture*, 15(4):33-41.

Beattie, Peter

- 1997 “Conflicting Penile Codes: Modern Masculinity and Sodomy in the Brazilian Military, 1860-1916”, in *Sex and Sexuality in Latin America*, Daniel Balderston and Donna J. Guy, ed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65-85.

Brandes, Stanley

- 2003 “Drink, Abstinence, and Male identity in Mexico City,”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153-176.

Brusco, Elizabeth E.

- 1995 *The Reformation of Machismo: Evangelical Conversion and Gender in Colombi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Buffington, Rob

1997 "Los Jotos: Contested Visions of Homosexuality in Modern Mexico", in *Sex and Sexuality in Latin America*, Daniel Balderston and Donna J. Guy, ed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18-132.

Bull, Sheana Salyers

1998 "Machismo/Marianismo Attitudes, employment, Educa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Women in Ecuador and the Dominican Republic," *Journal of Gender, Culture, and Health*, 3(1):1-27.

Carrillo, Héctor

2003 "Neither Machos nor Maricones: Masculinity and Emerging Male Homosexual Identities in Mexico,"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351-369.

Casas, J., B. Wagenheim, R. Banchemo and J. Mendoza-Romero

1994 "Hispanic Masculinity",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6:315-331.

Castaneda, Marina

2002 *El machismo invisible*, México, D.F.: Grijalbo.

Chant, Sylvia

2003 *Gender in Latin America*,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Cromwell, R .E. and R. A. Ruiz

1979 "The Myth of Macho Dominance in Decision Making within Mexican and Chicano Famili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355-373.

Escobar Latapí, Agustín

2003 "Men and Their Histories: Restructuring, Gender Inequality, and Life Transitions in Urban Mexico,"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84-114.

Fonseca, Claudia

- 2003 “Philanderers, Cuckolds, and Wily Women: Reexamining Gender Relations in a Brazilian Working-Class Neighborhood,”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61-83.

Girman, Chris

- 2004 *Mucho Macho: Seduction, Desire, and the Homoerotic Lives of Latin Men*, N.Y.: Harrington Park.

Goldwert, M.,

- 1985 “Mexican Machismo: Flight from Femininity,” *Psychoanalytic Review* 72:161-169.

Gutmann, Matthew C.

- 1996 *The Meanings of Macho: Being a Man in Mexico C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97 “Trafficking in Men: The Anthropology of Masculin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6:385-409.
- 2003 “Introduction: Discarding Manly Dichotomies in Latin America”,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1-26.

Hardin, Michael

- 2002 “Altering Masculinities: The Spanish Conquest and the Evolution of the Latin American Machismo,”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ity and Gender Studies* 7(1):1-22.

Hurtig, Janise and Rosario Montoya

- 2005 “Women’s Political Lives in Latin America: Reconfiguring Terrains of Theory, History, and Practic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0(1):187-201.

Ingoldsby, B. B.

1991 "The Latin American Family: Familism and Machismo,"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2:57-62.

Irwin, Robert McKee

2003 *Mexican Masculinit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ancaster, Roger N.

1992 *Life Is Hard: Machismo, Danger, and the Intimacy of Power in Nicaragu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wis, Oscar

1961 *The Children of Sánchez: Autobiography of a Mexican Family*, New York: Vintage.

López-Vicuña, Ignacio

2004 "Approaches to Sexuality in Latin America: Recent Scholarship of Gay and Lesbian Studi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9(1):238-253.

Malkin, Victoria

2004 "Gender and Status in Two Mexican Migrant Communiti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1(5):75-99.

Mirandé, Alfredo

1997 *Hombres y Macho: Masculinity and Latino Culture*, Boulder, CO: Westview.

Mitchell, Tim

2004 *Intoxicated Identities: Alcohol's Power in Mexican History and Culture*, N.Y.: Routledge.

Olavarría, José

2003 "Men at Home? Child Rearing and Housekeeping among Chilean Working-Class Fathers,"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333-350.

Oster, P.

1989 *The Mexicans: A Personal Portrait of People*, New York:
Harper & Row.

Paz, Octavio

1961 *The Labyrinth of Solitude; Life and Thought in Mexico*, New
York: Grove.

Quintero, Gilbert A. and Antonio L. Estrada

1998 "Cultural Models of Masculinity and Drug Use: "Machismo,"
Heroin, and Street Survival on the U.S.-Mexico Border,"
Contemporary Drug Problems, 25(1):147-168.

Ramos, S.

1962 *Profile of Man and Culture in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Riding, A.

1985 *Distant Neighbors*, New York: Vintage.

Segrest, Sharon L., Eric J. Romero and Darla J. Domke-Damonte

2003 "Exploring the Role of Machismo in Gender Discrimination: A
Comparison of Mexico and the U.S." *Equal Opportunities
International* 22(1):13-31.

Sternberg, Peter

2000 "Challenging Machismo: Promo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with Nicaraguan Men," *Gender and Development*,
8(1):89-99.

Stevens, Evelyn

1973 "Marianismo: the Other Face of Machismo in Latin America," in
Male and Female in Latin America, Ann Pescatello, ed.,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 89-101.

Thomkins, S. S.

1979 Script Theory: Differential Magnification of Affects, in H. E. Howe, Jr. and R. Dienstbiener,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 201-236.

Viveros Vigoya, Mara

2003 "Contempora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n Masculinity," in *Changing Men and Masculinities in Latin America*, Matthew C. Gutmann,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27-57.

Wolf, Eric R. and Edward C. Hansen

1972 *The Human Condition in Latin America*, N.Y.: Oxford University Press.

<Key Words>: Mexico, machismo, masculine identity, religious change,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economic activities

The Social Meanings of Machismo and its Changes in Rural Mexico

Joo, Jong-Taick^{*}

In the contemporary Mexican society, traditional machismo along with gender identity has been severely affect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ultural factors. Changes in machismo have been accelerated by rapid social changes. The major factors affecting machismo in the research areas are religious transformation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the North America.

For the women suffered from machismo and male-centered social structure, Protestantism provides meaningful shelters. Women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ransform the existing social structure dominated by men by means of new religious positions arranged by the Protestant churches and various activities that were not available in the past. Increas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provided a momentum for changing men's recognition towards women and for resisting male oriented value systems by women. Finally, many return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Soonchunhyang University

migrants from the North America not only bring dollars earned as wage but also receive Western values, which will perform an important role in transforming existing machismo.

Men are able to express dominance, pride, aggressiveness in the streets through machismo, whi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maintaining masculinity and male social relationship. Machismo has a function of verifying men's power and building up relationship.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machismo is the strengthening of homosociality which can be used to confirm masculine identity and to promote men's close friendship. Even though machismo inciting gender inequality is becoming weakened, homosociality among men has been continuously survived due to social necessity.